

2023년 통일기반구축사업 결과보고서

'북한문학'과 북한지역 로컬리티 이해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23년 통일기반구축 사업 결과보고서

1. 사업 배경

- 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2. 사업내용

- 사업 추진 내용
- 일정별 추진 사항
- 참여 인력

3. 사업 성과

- '탈북 작가의 상상력과 현실' 학술대회 개최. 2024. 01. 08(월)
- 『탈북 작가와 시인 공동 창작집—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북한 2023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예옥, 2024)
- 관련분야 기여도

4. 예산

- 예산계획
- 실제 예산집행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사업평가
- 미흡한 점(한계) 및 개선(보완)할 점
- 향후 계획
- 건의사항

6. 성과 관련 지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 사업 배경

□ 개요

- 사업명: **‘북한문학’과 북한지역 로컬리티 이해**
- 기관명: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방민호 교수
- 사업비: 30(백만 원)

□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본 사업은 ‘북한문학’의 학술적 위상을 재정립하여 한국 현대문학계에 북한문학 연구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본 연구팀은 지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북한 지역과 관련된 자료들을 조사하고 발굴하고자 하였다. 특히 북한 문학 및 ‘탈북문학’ 연구의 방법론을 정립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를 통해 한국 현대문학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해 왔다.
 - 구체적으로 제1기 사업 (2016년~2020년)에 해당하는 구간에는 ‘경원선’과 ‘경의선’에 철도 노선에 따라 남북 주요 지역의 근대 산문 자료를 수집하고 목록화하여 북한의 지역학적 특색을 반영하는 자료들을 선별하여 현대어로 운문하여 산문집을 출간하였다.
 - 또한 북한 출신 ‘탈북’ 작가의 창작 활동을 격려하고 남북의 문학적 교류를 위한 ‘남북 작가 공동’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지역의 사회·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을 다수 출간하였다.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지원으로 본 연구팀은 ‘북한 작가들의 지역 이야기’ 소설집 총 6권을 출간하였다.)
 - 제2기 사업 (2021년)에서는 한반도 문화 역사의 주요 지역이자 독립운동가들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황해도’ 지역을 테마로 북한 공간을 더욱 실재적으로 구획하여 지역의 특이성을 포착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 단행본으로 출간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북한 문학의 지역학적 연구를 위한 기본자료를 구축함으로써 후속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 이에 2023년도 사업 역시 앞선 사업들의 성과를 이어받아 북한의 지역적 특성을 뚜렷하게 포착할 수 있는 작품들을 주요 검토대상으로 삼고 ‘지역학적 연구 대상으로서의 북한문학’이라는 담론장을 보다 구체화하여 형성하고자 한다.

○ 목적

-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장기적 관심이 이어지는 현시점에서 본 연구 사업은 ‘북한문학’에 대한 논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북한 문학 연구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 지역학으로서의 북한문학 연구가 지향해야 할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모색함으로써 한국 내 북한문학 담론의 장을 마련하여 새로운 연구방법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 남북 평화와 통일에 관한 담론이 경제, 군사, 정치 등 정책 연구의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면 본 사업은 본격적으로 ‘지역학으로서의 북한문학’에 대한 연구를 체계화하고 향후 후속 연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사업 내용

□ 사업 추진 내용

- **‘탈북’이라는 이동의 경험을 지닌 작가들의 현재적 현실 인식을 담은 공동창작집 발간**
 - 탈북 작가들의 문학 증진 활동을 격려하여 그들의 체험적 진실과 고향에 대한 세밀한 기억들을 바탕으로 북한의 지역적 특색이 부각되는 작품들을 요청하였다. 그 중에서도 북한의 동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청탁함으로써 탈북 작가의 총체적인 현실 인식을 검토하였다.
 - 북한의 다양한 지역에서 활약했던 작가들의 현실 인식을 담은 소설 5편과 시 10편을 ‘창작집’ 형태로 묶어 출간하고자 하였다.
 - 올해 사업에서는 위영금이라는 시인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성격의 작품을 단행본에 수록하였다.
 - 단행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가	작품명	줄거리
이지명	「어떤 죽음」	한 제대 군인을 둘러싼 참극의 전말을 밝히는 소설이다. 해당 작품은 “2023년 4월, 함경북도 어랑군읍에서 범피자가 쓴 총에 맞아 네 명의 보안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터졌다.”라는 문장으로 서술을 시

		작함으로써 눈길을 끈다. 액자소설 형태로 구성된 것이 특징적이다. 액자소설 내부의 이야기는 범인 박철영의 수기로, 추리소설 문법을 갖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작가의 근작 『철과 흙』(2023)과도 연관성을 지닌다.
김유경	「하얀 별동별」	장편소설 『인간모독소』(2016)로 널리 알려진 작가 김유경의 신작이다. 고난의 행군 시기 먹을 것이 없어 게 어머니의 죽음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소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소설에서 소년은 현재 아버지와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부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오해를 통해 생존의 문제를 서사화하고 있다.
김정애	「가위손」	이 소설은 작가의 전작과 달리, ‘꾸미는 여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흥미를 유발하는 작품이다. 주인공 미화는 머리단장에 관심이 많은 여성으로, 남편과 함께 종종 외국엘 다녀오기도 하며 ‘평양 시민’으로서 특별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릴 적 친구 달래와 재회하게 되면서, “의거 입북자”라는 ‘남조선 사람’과 만나게 된다.
위영금	시 「어버버」의 9편	0. 어버버 1. 키스 2. 부끄러워 마세요 3. 착한 당신 4. 다시 만나자는 거짓말 5. 당신 누구예요 6. 어찌 그리하셨습니까 수령님 7. 길 있어도 내 못가요 8. 꿈에라도 갈 수 있나 9. 죄인이어요
도명학	「함흥역」	장진호반으로 가는 지선열차를 갈아타려는 주인공이 함흥역에 머무는 동안 도둑이 살벌한 역전 상황을 직접 경험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 탈북 작가·작품 연구 동시 진행

- 연구참여자를 포함하여 ‘북한문학’ 그 중에도 ‘탈북문학’에 관심을 지닌 연구자들을 초청하여, 그간의 연구 동향을 검토하고 새로운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탈북 작가들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다각적으로 조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자 본 연구팀은 ‘탈북 작가의 상상력과 현실’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 본 학술 행사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탈북 작가의 작품세계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개별 작가론과 작품론을 중심으로 비평적 접근, 수사학적 접근으로 탈북 작가의 작품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탈북 작가의 작품에 내재된 다양한 의미와 문학적 특징을 폭 넓게 탐구하였으며, 활발한 토론을 통해 탈북 작가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도출하였다.

□ 일정별 추진 사항

일 정	추진 내용
2023.03	-연구를 위한 전반적인 틀 구축
2023.04~2023.05	-창작집 출간을 위한 주제 모색, ‘공동 창작집’ 참여 작가 섭외 기획
2023.05~2023.06	-‘공동 창작집’ 참여 작가들에게 원고 청탁
2023.06~2023.07	-본 사업의 취지를 전달, 창작집 기획 방향에 대해 설명
2023.10.~2023.12.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연합 학술대회 발표를 위한 사전 준비(‘공동 창작집’ 참여 작가 원고 수합) -학술대회 참석 연구자들과 사전 준비 회의를 통해 개인별 연구 계획 수립
2023.12~2024.01.	-학술대회 개최, 학술대회 이후 후속 연구에 대한 방향을 모색 -‘공동 창작집’ 원고 최종 검토 및 발문 작성 -원고 교정
2024.02.	-『탈북 작가와 시인 공동 창작집—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북한 2023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가제)(예육, 2024) 출간 예정

□ 참여 인력

- 책임자

성명	대학	학과	직급
방민호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연구소(원)	구내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국어국문학과	02) 880-9095	010-9959-1420	rady@snu.ac.kr

○ 주요 참여 인력

성명	소속	직급	이메일
방민호	국어국문학과	교수	rady@snu.ac.kr
김민지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dustymonji@snu.ac.kr
장윤정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ynyz29@snu.ac.kr

3. 사업 성과

□ 『탈북 작가의 상상력과 현실』 학술대회 개최. 2024. 01. 08(월)

- 본 연구팀은 탈북문학을 다층적으로 조망하고자 ‘탈북 작가의 상상력과 현실’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탈북문학 전문연구자와 신진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다 활발한 연구의 장을 마련하였다. 본 사업의 ‘공동 창작집’ 참여 작가들(이지명, 도명학, 김정애, 김유경, 위영금)을 비롯하여 지난 사업 참여 작가인 설송아에 대한 개별 작가론 작품론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다. 작가의 창작방식과 작품에 대한 심층적인 독해를 통해 연구자들의 다양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고 종합 토론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문제의식을 새롭게 형성할 수 있었다.
- 발표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제목 (주제)
1	탈북소설의 가능성 -이지명 소설을 중심으로
2	쓰기의 전위(轉位) -도명학 소설 속 북한 현실 쓰기의 전략과 양상
3	유량과 정주 사이, 망향의 수사학- 위영금 시와 산문에 드러난 자기 증언과 감각 기억의 양상을 중심으로

4	비국민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질문- 김유경론
5	젠더 규범에 대한 도전: 설송아의 소설을 통해 본 북한의 여성 돈주
6	탈북 문학에 ‘회귀’를 더하면? : 설송아 장편소설 『태양을 훔친 여자』(2023)가 재현하는 ‘이동’의 원리
7	‘살아-남기’의 서사: 김유경 『푸른 낙엽』(2023)에 나타난 인물들의 생활 양상
8	도명학 소설에서 발생하는 가치의 교환
9	이지명 소설로 보는 현실과 상상의 경계-『철과 흙』(2023)을 중심으로
10	김정애의 『북극성』에 나타난 ‘평등’

□ 『탈북 작가와 시인 공동 창작집—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북한 2023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가제) (예욱, 2024) 출간 예정

- 본 연구팀은 지난 2016년부터 탈북 문학의 자료를 발굴 및 정리하고, 탈북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함으로써 탈북 문학의 문학사적 의미를 찾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남북 작가 공동 소설집, 경의선·경원선을 테마로 한 창작집, 황해도 지역을 테마로 한 창작집 등의 단행본을 출간해 왔다. 2023년 연구 결과물로는 ‘북한의 동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한 공동 창작집을 출간하고자 한다. (예욱 2024년 2월 출간 예정)
- 탈북 작가들의 문학 창작을 촉진시켜 북한의 동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들의 경험이 담긴 작품을 통해 ‘북한지역 로컬리티’에 대한 논의를 확장할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이지명, 도명학, 김정애, 김유경 등 4인의 소설 4편과 함께 위영금의 시 10편을 수록하여 보다 확장된 형태의 단행본을 기획할 수 있었다.
- 『탈북 작가와 시인 공동 창작집—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북한 2023’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가제, 2024년 2월 출간 예정)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제목	저자
1	하얀 별뿔별	김유경
2	시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외 9편	위영금
3	어떤 죽음	이지명
4	가위손	김정애
5	함흥역	도명학

- 2023년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의 대표 실적인 『탈북 작가와 시인 공동 창작집—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북한 2023』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가제)는 2월 출간을 목표로 최종 편집 중이다.

□ 관련분야 기여도

- 북한의 동시대를 배경으로 한 창작집은 북한의 현재 상황과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작품을 통해 독자들은 북한 주민들의 일상, 감정, 가치관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 본 사업에서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북한문학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자 하였다. 참여 연구자들은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통해 문제의식을 새롭게 형성하여 후속 연구에 필요한 방법론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북한문학에 대한 지속적이고 진보된 연구를 촉진할 수 있다.

4. 예산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사업평가

- 사업의 적절성
 - ‘지역학적 연구 대상으로서의 ‘북한문학’의 담론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북한 로컬리티에 대한 심층적인 조망을 가능케 한다. 특히 한국현대문학 연구에 있어서도 ‘로컬리티’ 방법론은 현재에도 활발하게 논의되는 의제인바 본 사업은 한국문학계에 북한문학에 대한 연구 활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탈북 출신의 작가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체제를 견디지 못하고 고향 탈출을 감행한 작가들로 ‘탈북’이라 불리는 이동 경험은 이들에게 남과 북이라는 ‘두 체제’를 직접 겪게끔 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경험과 복합적인 시대 인식은 오늘날 한국사회를 보다 입체적이고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본 사업의 ‘공동 창작집’에 참여한 작가들은 북한과 남한 사회를 비교 대조하여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지닌 작가들로 이들의 시각과 작품을 통해 남북한 사회의 체제를 성찰하고 고민하는 장을 마련할 수 있다.
- 사업의 효율성

- 탈북 경험을 지닌 작가의 소설과 시(10편)을 ‘공동 창작집’에 수록함으로써, 북한문학의 다양성을 확장하였다. 이들의 작품을 통해 북한 문학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어 담론장을 보다 구체화하여 형성할 수 있다.
- 과거 북한의 다양한 지역에서 활약했던 작가들의 현실 인식을 담은 작품은 보다 입체적으로 북한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다. 작가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통해 남북 간의 이해와 유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 사업의 영향력

- 본 사업의 ‘공동 창작집’에 참여한 김유경 작가의 경우, 그의 소설 『인간모독소』(2016)는 과거 프랑스로 번역되어 프랑스에서도 출간된 바가 있다. 이러한 사례는 북한 문학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탈북 경험을 지닌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격려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들의 작품은 ‘국경’을 넘어 다양한 독자들과 소통하고 있음으로써,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북한문학에 대한 국제적 이해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사업의 발전가능성

- 2015년부터 본 연구팀이 통일기반구축사업의 결과물로 꾸준히 출간해 왔던 탈북 작가의 창작집은 연구자들에게 북한문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연구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시리즈 격인 단행본은 탈북 작가들의 다양한 시각과 창작 변모 과정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 연구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창작집 및 북한 문학에 대한 연구 자료는 일반 대중에게도 북한의 사회, 역사, 문화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미흡한 점(한계) 및 개선(보완)할 점

- 본 사업에서 <‘탈북’ 작가들의 창작 작품+‘탈북문학’ 연구자들의 논문 모음> 형태의 단행본을 출간할 계획이었으나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은 수정 보완할 시간이 필요하여 결과적으로 탈북 작가의 소설 4편과 시 10편을 단행본에 수록하였다.
- 초기 사업 계획은 총 6명의 북한문학 전문 연구자를 초청하여 소규모의 학술회의를 개최 할 예정이었으나, 신진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규모를 넓혔다. 이에 따라 발표자 10명의 연구 논문은 작가의 창작 작품과 함께 게재하기에는 예산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탈북 작가의 작품으로 창작집을 기획하게 되었다.

향후 계획

- 지금까지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문학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을 단행본에 수록하여 ‘연구논문모음집’ 형태의 단행본을 출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한문학에 대한 학술적인 관심을 촉진하고 연구자들 간의 다양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 작가들의 작품이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 각지에서 읽히고 번역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번역론을 단행본에 게재하여 이를 통해 국내·외 현대문학 연구자들에게 ‘북한 문학’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건의사항

- ※ 사업의 진행,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하여 통일평화연구원 혹은 학교 본부에 게 전달할 건의 사항을 기재

6. 성과 관련 지표

대표 사업 실적

- ※ 1건 선정
- ※ 사업 종료일(2024년 1월 31일) 이후 가능한 실적도 가능

- 『탈북 작가와 시인 공동 창작집—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북한 2023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가제)(예측, 2024) 출간 예정